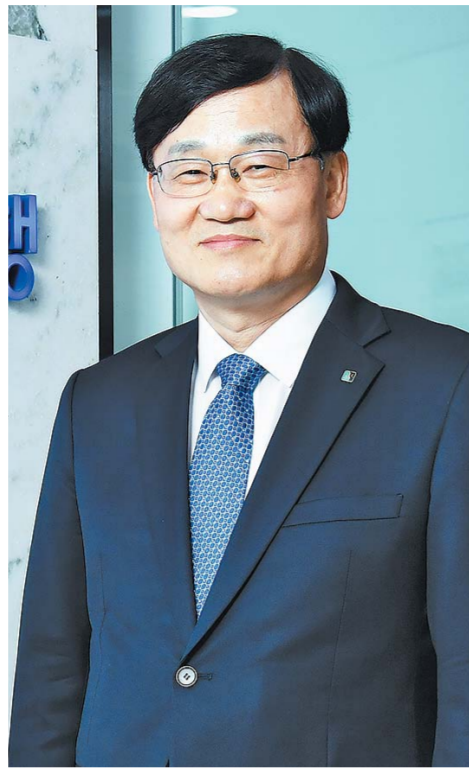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 성장 사다리가 될 것”

서정학 IBK 저축은행 대표

이달 ESG부분 금융위원대상 수상 은행 공공성·수익성 조화에 고민 서민금융 전담 부서 신설 상품 개발



오는 15일이면 출범 9주년을 맞는 IBK저축은행은 최근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이달 초 열린 제116회 국가지속가능경영(ESG) 콘퍼런스에서 IBK저축은행은 ESG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ESG금융부문 최고상으로 시중은행, 지역은행 등 굵직한 은행들을 제치고 저축은행이 수상한 일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수상의 배경에는 서정학은행의 경영철학을 잘 따르는 직원들이 있었다. 서 대표의 시선은 일반 은행의 대표이사와는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내기에 급급할 때 서 대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금융을 지향한다.

서 대표는 “IBK저축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이자 서민금융기관으로서 2013년 출범 후 현재까지 은행의 사회

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가 강조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은 은행의 공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 대표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고객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더욱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 회사 경영이 어렵고 담보가 취약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금융 혜택을 빼앗고 있다”며 “IBK저축은행은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도 금융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BK저축은행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가장 빠르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우산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분할 상환금을 유예했다. 또 ‘힘내라 정기예금’ ‘기운찬 정기저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상품을 출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맞서 희생한 의료·방역관계자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사실, 은행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

다. 서 대표 역시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지에 대해 늘 고민하며 좀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 대표는 “수익성과 공공성은 양날의 검이 아닌 유기적인 가치로 볼 수 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기업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IBK저축은행은 올해 초 정책금융 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공공적 성격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서민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그 산하에 상품개발팀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IB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서 대표가 2021년 3월 취임한 이후 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서 대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면서도 오는 2025년까지 총자산 5조 원을 확보하고 업계 10위 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 대표는 “IBK저축은행은 앞으로 수익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보다 많이 사용하고 고객에게는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성장 사다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허정은 대표, 부산시장상 수상

허정은(부일CEO 11기)(주)제이세라믹 대표는 12일 부산여성경제인협회 창립 23주년을 맞아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여성기업 발전과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모범여성기업인’으로 선정돼 부산시장상을 받았다.

(주)제이세라믹은 타일 도기 수전 제조·수입 전문 기업이다. 부울경지역의 여러 아파트에 품질이 우수한 타일과 도기를 공급하는 업체로 업계에 이름이 있다. 김상훈 기자



해양문화상 대상에 구애영 씨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신문협회(회장 이석래)가 주관하는 제26회 한국해양문화상 공모전 대상은 시 ‘넙다리뉴스의 바다’ 외 53편을 낸 구애영(사진·인천) 씨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수필의 박순자(경남) 씨와 소설의 권순철(부산)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시를 낸 이효애(부산)·김성신(광주)·김경희(부산) 씨와 소설을 낸 하상영(부산) 씨가 뽑혔다.



인사

◆경남 창원시 [3급 전보] △마산합포구청장 안병호 [4급 승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재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승룡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조성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김중혁 △진해구 대민기획관 김부식 [4급 전보]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중 △진해구청장 김동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의국장 김중필 △부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준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선희.

■본사 손님
△신라대학교 총장 김홍석, 대학원장 이희대, 대외협력실장 최승복.
△부산 사하구청장 이갑준.
△부산 남구청장 오은택, 소통감사담당관 김상용, 공모팀장 박정선.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 ‘열심히 뛰어야 최고가 되라’ 평전 출간

“가난은 저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인내심과 삶에 대한 도전정신의 재력이었습니다. 가난의 배고픔을 극복하고 최고가 되고자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평전에 언급된 두 가지의 꿈(경남과, 부산과 같은 명문고 설립과 출산장려재단법인 설립)을 실현하고 부산에 대한 고마움의 빛을 맺백, 몇십분의 일이라도 갚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장복만(주)동원개발 대표이사 회장이 평전 ‘열심히 뛰어야 최고가 되라’ 출간을 기념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 평전은 올해 팔순인 장복만 회장과 동갑내기 50년간 인연을 맺어 온 배승진 월간 부산 발행인이 썼다.

총 688쪽으로 집필된 평전은 동원개발의 창업비사와 건설·금융·수산·스포츠를 아우르는 성공신화, 사회공헌 스토리, 교육사업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 등을 다뤘다.

평전은 개인의 성공담이기에 앞서 한 인물이 흡수저로 태어나서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



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생히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지침서로 평가 받고 있다.

경남 통영의 가난한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장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통영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왔다. 동아대 법학과를 수료한 뒤 1975년 주택사업 전문건설업체인 동원개발을 설립했다. 지난 47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아 오면서 전국에 8만 1000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해 부산·울산·경남 1위를 넘어 시공능력평가 1조 5200억 원, 전국 26위의 주택건설사로 키웠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인재를 양성하는 길뿐이



부일CEO아카데미 8기, 확산중에 장학금

부산일보CEO아카데미 8기 성구현 회장, 박중훈 직전회장, 이철규 사무총장, 김신애 사무차장은 5일 확산중학교에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APEC SEN & Port Authority of Thailand

Strengthening the Academic Training Cooperation
5th July 2022 / Busan, Republic of Korea



해양수산업연수원, 태국 향만청 대표단 회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중)은 11일 해기인력 육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태국 향만청 사업개발국 솜차이 햄송 부국장 등 대표단과 회의를 했다.



부산시재향군인회, 해병대 진동 전철비 참배

부산시재향군인회(회장 박동길) 임직원 60명은 8월 6·25 격전지인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철비를 찾아 참배하고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백선염장군 서거 2주기

부산광역시국원로회의(의장 김석조)와 자유시민반선연합(대표 강도용)은 11일 국장관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선염 장군 2주기 추모 행사를 했다.



민주평통 동구협의회·메타버스협회 협약

민주평통부산동구협의회(회장 류용태)와 한국메타버스협회(회장 김재영)는 13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협약을 체결했다.



거창 주상 주민자치회, 울산 수암동 단체장 초청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민자치회는 12일 자매결연기관인 울산 남구 수암동주민자치위원회의 사회단체장 등 40여 명을 초청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려해상공원·포스코ICT, ESG 경영 프로젝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포스코ICT는 최근 국립공원 탄소중립(Net-Zero)과 민간 ESG 경영을 접목한 ‘공유는 씨앗 프로젝트’ 운영에 나섰다.

BNK부산은행,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지원

BNK부산은행은 13일 다가오는 초복(16일)을 맞이해 본점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지원하는 여름 특화 사업공헌사업으로 부산은행이 2007년부터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역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50곳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삼계탕과 육개장이 포함된 보양식 2500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명철 경영전략그룹장은 “이전에는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 개별 포장된 보양식 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원철 선임기자 wclim@

정용환 장학회, 부산아이파크 선수단에 특식

정용환 축구 꿈나무 장학회(회장 송준열)가 프로축구 K리그 부산아이파크 선수단에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다.

정용환 장학회는 부산아이파크 서포터즈 P.O.P와 함께 12일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를 방문해 중화요리 특식을 제공하며, 선수단을 응원했다. 서포터즈 P.O.P는 커피지를 준비해 음료를 선물했다. 또, 이현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도 자리를 함께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용환 장학회는 부산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로얄즈에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원클럽맨’으로 활약한 수비수 고 정용환 선수의 뜻과 의지를 이어 축구 꿈나무 육성에 앞장서는 장학단체다.

정광용 기자 kyjeong@



거제대, 경남산업고에 발전기금

거제대학교(총장 허정서)는 11일 경남산업고등학교(교장 홍세철)에 학교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거제대는 올해 학교법인 덕부학원 출범과 김형수 이사장의 취임으로 ‘New Start, 젊고 활기찬 거제대학교’를 목표로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하고 있다.

임원철 선임기자



이진수 회장, 부산진구에 선풍기

이진수(왼쪽 네 번째) (주)라움펠리스 회장과 임직원들은 11일 부산진구청(구청장 김영욱·왼쪽 다섯 번째)을 방문해 부산진구의 저소득 세대를 위한 선풍기 150대를 전달했다.

이진수 회장은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상훈 기자